



특별기고

2004 보일러시장 전망

- 한국가스신문 정육형 차장

가정용

**올해 가스보일러 전체규모 110만대선 예상
신규·교체시장서 지난해 유사 내지 소폭 감소
7월 고효율제 변경따라 콘덴싱보일러 보급 확대**

올해 국내 경기전망은 불확실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미국 및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중시가 상승국면에 있는 등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불안정한 이라크 상황, 선진국 투자 위축가능성 등으로 경제를 밝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내경기도 4%대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소비심리도 되살아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카드사 및 제2금융권 부실, 정치적 불안정 등 여전히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주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스보일러시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의견이 모이고 있다.

가스보일러시장은 이미 발전정체기에 접어들었으며 신규시장에서나 교체시장에서도 지난해

와 다른 색다른 변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판매량 잠정결산

지난해 가스보일러시장은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한 115만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는 15만대에 달하는 다세대 주택 특수에 힘입어 사상 최고기록인 130만대 시장을 형성했던 지난 2002년과 비교해서도 선전하는 양상이었지만 10월 이후 따뜻한 날씨 등으로 판매가 둔화되면서 시장규모가 10%이상 축소됐다.

이러한 불황속에서도 2개사는 30만대를 넘어섰지만 10%이상의 판매감소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판매가 감소했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대리점 단계에서의 판매감소가 원인인데 아파트 건설단체납품시장에 비중을 둔 보일러사들은 기 계약물량에 따라 판매물량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로 이끌 수 있었다.

신규 아파트건설시장 등 보일러 신규시장은 지난 2002년의 다세대 주택붐이 사그라지면서 지

난 2002년의 72만대선과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한 65만대에서 70만대선이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된다.

나머지 교체시장은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예년보다 온화했던 겨울날씨 영향으로 55만대내지 60만대선에서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인다.

올 신규시장 전망

2001년 내지 2002년초 건축허가가 나서 내년 에 준공예정인 아파트 건설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부정적으로 보면 건설투자 관련 정부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준공을 미루는 건설업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4월의 총선, 하반기의 행정수도 이전지 확정, 지역개발 등의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해 어느 정도의 증가율은 유지할 전망이다.

신규 시장은 올해도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공급물량이 늘고 있는 지방 광역시급 도시에서의 수요확대가 기대되며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건설 수요가 늘고 있는 대전·충남북 지역의 보일러 수요확대가 기대된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가스보일러 수요의 경우 계속 증가하는 추가에 있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5만대를 넘어설 예정

이다.

이 시장은 90년대초 중앙난방방식으로 대거 공급된 아파트 등 대형 집단주택들의 난방배관이 낡아 난방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개별난방의 편리성이 알려짐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다.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와 구리 안성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전 등 지방도 개별난방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급 보일러의 판매확대가 늘어 각 제조사마다 소비자를 잡기 위한 노력을 올해도 계속할 전망이다.



올 교체시장 전망

기존 가스보일러 사용자 중 보일러를 교체하는 수요는 매년 그 폭이 늘고 있다. 특히 90년대중반 이후 제조사들의 치열한 가격경쟁이 이어지면서 보일러의 수명이

다소 짧아져 올해와 같은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진다고 해도 교체수요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도시가스 지역만 지난해 9월 기준 724만 가구인데 이중 최근 7년 동안 설치된 신규 보일러는 410만대에 불과해 나머지 300만대가 점차 교체시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교체시장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55만대에서 65만대선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교체시장은 대부분 보일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물량으로 올해도 대리점간 과열, 과당 경쟁이 이어져 소비자판매가격은 계속 하락할 우려가 있어 상호간 자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제품 개발 및 출시 방향

지난해 가스보일러 R&D 분야에서는 시대적 요청사항인 에너지절약, 인터넷, 건강 등이 최고의 화두였다.

올해도 이들 기능을 포함해 보일러에 다른 기능을 가미한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 보일러들이 다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콘덴싱 보일러의 개발과 출시가 활발할 전망이다. 이는 올 7월부터 고효율 가스보일러의 효율이 82%에서 84%로 상향돼 콘덴싱 보일러와 거꾸로 타는 보일러만이 이에 해당되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에너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고효율 가스보일러에 대한 설치비 지원이 검토되고 있고,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원자재가격 이하로 떨어진 가스보일러 가격체계에 새로운 돌파구로 콘덴싱이 유효하다는 인식이 제조사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콘덴싱보일러는 그동안 경동보일러가 거의 독점으로 보급해오면서 다른 회사들의 참여가 적었으나 올해는 이 같은 이유로 보급속도에 가속이 붙을 예정이다.

경동외에 대우가스보일러도 적게나마 보급중이며 린나이도 지난해 이미 개발을 완료해 출시 시점을 늦추고 있는 상태다. 롯데기공과 대성셀틱도 개발을 진행중이어서 시장확대를 위한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산업용

관류 등 중소형 산업용보일러 판매증가

열병합 등 대형보일러 판매 감소 불가피

하반기 이후 세계 및 국내 경기 회복에 기대

산업용 보일러시장은 국내 산업발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설비투자과 건설업 경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반적인 세계 및 국내 경기회복에 기대를 걸어야 할 상황이다.

올해는 미국, 유럽 등 세계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국내 경기도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돼 산업용보일러업체도 하반기 이후에는 서서히 경기를 회복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라크 상황 등 국제적인 요인외에도 많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 동남아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고 있고 총선이후 경기불안정 등 악재도 많은 상황이다.

업종별로는 전체적인 산업용보일러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 10%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관류보일러의 경우 올해 판매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열병합용 등 중대형 산업용 보일러와 노통연관식, 수관식 등의 대형과 중형 보일러들의 하향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산업용보일러가 경기의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나, 기존의 보일러 대체 수요는 상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류보일러 등 설치면적이 적고 운전효율이 좋은 소형보일러들은 판매증가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크럼보일러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중대형 산업용보일

리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관류보일러 등 중소형 보일러시장은 전망이 밝은 상황이다.

지난해 대형 업체들 고전

지난해는 국내 경기침체의 결과로 대형 산업용 보일러를 중심으로 고전했던 해였다. 그동안 상당한 수주실적을 올리며 탄탄한 업체로 알려졌던 대구의 D보일러사가 부도를 맞는 어려움이 가중됐었다.

중대형 산업용 보일러업계의 침체가 두드러졌는데 노동연관식, 수관식 등의 중소형 보일러도 하향추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보중공업 등 대형 보일러 제조업체들이 힘든 한해를 보냈다. 지난 30여년간 산업용보일러 제작과 열병합 발전용 보일러 대형 플랜트 설비를 전담해온 동보중공업은 지난해 매출액 3/4분기 기준으로 63억6961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6.5%가 감소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동보중공업은 지난해 경영전문 CEO를 영입해 새로운 활로 개척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중대형 산업용보일러업계와는 별도로 관류보일러 등 중소형 보일러는 10%이상 신장하며 선전하는 해였다.

특히 관류보일러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부스타와 미우라는 매출액과 순익을 전년대비 10%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도 관류보일러 신장세 지속

계절별이나 시간별 사용량이 다른 사용처의 경우 소형 관류보일러를 여러 대 설치해 필요한 만큼의 보일러만 가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류보일러 판매 증가는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설치된 산업용보일러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는 기존 동일 용량 보일러에 비해 크기를 대폭 줄인 동시에 여러 대를 붙여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스크립 보일러가 본격

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관류보일러 확대를 더욱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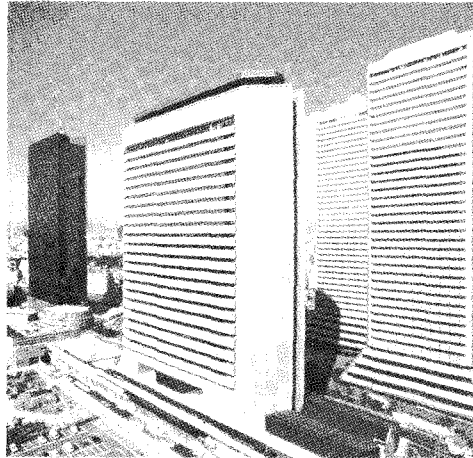
이들 제품은 인공지능, 통신기능, 고효율, 친환경, 밀착설치가능 등 첨단 신기술의 결합체라고 초슬림 관류형 증기보일러로 배기가스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하는 'More Clean' 연소시스

템을 개발, 적용하여 저NOx화(80ppm이하)를 실현하는 등 장점이 많아도 올해도 보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효율도 판매확대될 듯

산업용 보일러 업계는 올해도 고효율과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여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02과 지난해에 고효율 보일러를 장착토록 설계된 건물이 올해 완공되면서 고효율 산업용 보일러설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



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고효율인증을 받은 산업용 가스보일러제조사는 9개사로 늘었다.

지난 11월말까지 고효율 인증을 받은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는 총 88개 모델이며 이중 지난해 인증을 받은 제품은 24개이며 초창기에 인증을 받은 24개 모델은 인증기간이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15일 기준으로 고효율인증을 받은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는 대열보일러 27개 모델, 대림로얄보일러 15개 모델, 한신보일러 13개 모델, 한국미우라공업과 부스타 각 10개 모델, 동광보일러와 동일보일러, 삼호보일러 각 4개 모델, 에이치티비 1개 모델 등이다.

각종 에너지기기 납품에서 관공서나 조달물자는 물론 민간시장에서 고효율을 조건으로 납품이 더 늘어날 것이며 민간시장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는 이어질 전망이다.

단체수의계약 유지

보일러조합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과 조달물자구매 계약을 맺고 수주해 회원사에 나눠주는 보일러공급 건수는 올해도 지난해 수준은 유지할 전망이다.

외국기업들의 통상압력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단체수의 계약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규모가 작고 자체 경쟁력이 약한 산업용 보일러 업체들은 어려움이 예상돼 사전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이 수주한 단체수의계약물량은 지난해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이어 10% 씩 증가한 것인데 규모는 대용량에서 중소용량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올해 관류 등 중소용량을 중심으로 단체수의 계약물량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혹한기 보일러 동결 진단 및 예방법

온수꼭지에서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주방이나 목욕탕에서 온수쪽으로 전혀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일러 밑의 직수배관이나 온수배관이 동결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의 응급조치 방법으로는 일단 보일러 밑의 직수라인과 온수라인에 물을 따뜻하게 데운 후 두 라인에 조금씩 흘려주는 작업을 하는 방법과 헤어 드라이기로 직수와 온수라인에 열기를 가하여 해빙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한번으로 끝나면 안되고 여러 차례 반복해주어야될 경우도 있다. 물론 그 이유는 라인의 결빙상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에도 해빙이 안된다면 동결의 상태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근 보일러 설비점 또는 수도설비점에 해빙을 의뢰하면 된다.

다만 온수밸브를 온수가 아닌 냉수 방향으로 돌려놓을 때 냉수가 나오는 것은 보일러의 냉수가 나오는 것이 아닌 상수도 라인에서 나오는 냉수임으로 온수쪽 동결과는 관련이 없다.

온수꼭지에서 물은 나오나 따뜻하지가 않는 경우

온수쪽으로 완전히 밸브를 열었을 때 물이 나오지만 따뜻하지 않고 미지근한 물이 나온다면 배관동결과는 관련이 없다. 보일

러 제조사의 홈페이지 A/S 접수코너나 전화로 서비스 접수를 해야 한다.

온수 배관의 동결 사전 예방 방법

- 저녁에 잠들기전에 온수를 조금 열어둔다. 배관의 동결은 혹한기 새벽에 대부분 발생된다. 이러한 동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잠들기전에 온수 밸브를 조금 열어두셔서 물을 흘려주면 직수배관 및 온수배관의 동결을 예방할 수 있다.

- 배관에 보온재를 감싸준다. 보일러의 직수배관과 온수배관에 집에서 안입는 헌옷가지 등으로 감싸주면 훨씬 보온 효과를 볼 수가 있다.